

<우리 수출에 대한>

2002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3년 전망

2002. 12.

KOTRA

목 차

1. 최근의 국제무역환경	1
2. 2002년 수입규제 동향	8
가. 총 괄 / 8	
나. 국별 동향 / 11	
3. 2003년 수입규제 전망	33
가. 총 괄 / 33	
나. 주요국별 전망 / 39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47

1.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

□ 글로벌화의 진전, 신흥 경제국들의 등장, 시장개방 확대, 일부품목의 범세계적 생산과잉 현상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는 세계적 산업구조 조정을 촉발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 신흥경제국들의 성장을 주도할 경공업과 기초 중공업 분야는 대다수 선진국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업 대책을 위해서도 보호주의 정책을 들고나올 가능성 상존
- 개도국들도 경제와 수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일부 선발국들에 대한 견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활용
-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다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이 병행됨으로써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나 돌발 가능한 변수
- 최근 수출 단가의 지속적 하락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출입국간 갈등 가능성을 내포

<세계 수출단가 변화 추이>

(단위 : 지수,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단가지수	100	95	98	107	106	99	93	91	93	89
변화율	1.8	-4.8	3.0	9.7	-0.8	-6.6	-6.2	-1.9	1.4	-3.1

자료원 : WTO,

주 : 변화율은 전년대비

□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배태될 소지가 많은 토양속에서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들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추세이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3월에 발동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세계적인 철강분쟁, EU와 일본의 폐쇄적인 농업정책, EU의 바나나 수입 유통체제와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등은 그 예

□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반덤핑 조치(반덤핑 확정조치 기준)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02건이 도입되어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34개국에 의해 총 80개국을 대상으로 1,161건이 발동됨.

<주요국별 반덤핑 조치 발동/피소 현황>

(단위 :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세계 전체		118	84	119	162	182	235	159	102	1,161
주요 발동국	미국	33	11	20	16	24	32	33	16	185
	인도	7	2	8	22	22	57	38	21	177
	EU	14	17	18	25	18	41	13	14	160
	아르헨티나	13	20	11	12	9	16	15	17	113
	남아공	0	8	18	14	34	13	5	8	100
	캐나다	7	0	7	10	10	14	19	0	67
주요 피소국	중국	26	15	33	24	20	30	30	18	196
	한국	4	5	3	12	13	21	12	4	74
	미국	8	4	9	11	8	13	4	5	62
	대만	2	2	6	11	7	18	9	8	63
	일본	5	6	5	7	10	19	8	1	61
	러시아	8	2	9	4	15	9	6	1	54

자료원 : WTO

주) 반덤핑조치 확정기준, 2002년은 6월 말까지의 자료

- 반덤핑 조치를 보호주의 조치로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불공정 무역 규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쟁 격화와 산업구조조정 촉발이 그 발동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한 것으로 분석됨.

- 세계적인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철강금속 분야에서 반덤핑 조치가 가장 빈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서도 세계적인 경쟁 격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반덤핑 조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다만, 2002년도에는 철강 세이프가드 증가로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감소한 것으로 보임.

<주요분야별 반덤핑조치 발동현황>

(단위 : 건수, 세계전체)

분 야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철강금속	49	22	44	60	81	82	64	26	428
화학	17	12	20	13	14	52	36	30	194
고무,플라스틱	10	10	13	14	25	22	11	18	123
기계,전기전자	8	13	19	28	3	13	11	5	97
섬유,의류	4	8	7	1	21	24	8	10	83

자료원 : WTO

주) 반덤핑조치 확정기준, 2002년은 6월 말까지의 자료

- ☐ 2002년의 수입규제 동향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이 급증하였다는 것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 수	2	5	3	10	15	26	53	116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update 2002"

주) 2002년은 9월까지의 조사건수임.

- 최근의 세이프가드 조사 증가는 미국의 철강분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서 비롯되어 졌는데, 2002년 들어 9개월 동안의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철강분야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 비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요르단, 칠레, 인도, 불가리아 등이 총 2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하였음.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

품 목	2002(~9. 30)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7건	6.03%
철강 & 금속	94건	81.03%
기계류	5건	4.31%
식품 & 농산물	6건	5.17%
기 타	4건	3.45%
합 계	116건	100%

자료원 : Mayer, Brown, Rowe & Maw,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update 2002"

- 최근들어 세이프가드 조치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Mayer, Brown, Rowe & Maw는 수년 내에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가 반덤핑 조사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최근들어 개도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용이하며, 국내산업 피해구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임.

- 또한 전통적인 반덤핑 활용 국가인 미국, EU, 캐나다도 GATT체제 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세이프가드에 의한 수입규제의 과급효과는 반덤핑에 비해 훨씬 크기때문에, 세계교역 환경에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비록 공정한 무역일지라도 자국

산업이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자칫 자국산업 보호를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는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 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일괄적인 수입규제 조치이므로 국제무역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는 훨씬 큼.

□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다른 전통적인 비관세 조치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위생이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장벽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호무역주의의 한 경향이라 볼 수 있음.

- 기술장벽 도입은 WTO체제 출범이후 점차 늘어나 2001년 537건, 2002년(1~11월)에는 525건이 도입되어 WTO 출범이후 2002년 11월말 현재까지 총 4,613건이 도입됨.

<신규 기술장벽 도입현황>

(단위 :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11)	합계
세계전체	365	460	795	648	672	611	537	525	4,613
EU	123	123	437	276	185	156	7	56	1,363
일본	50	41	35	28	30	56	32	26	298
미국	33	40	33	35	49	32	14	13	249
캐나다	29	20	30	115	24	26	25	25	294
호주	20	18	26	12	35	10	8	4	133
멕시코	29	27	29	35	34	28	8	27	217
브라질	1	9	35	43	17	12	29	43	189
아르헨티나	0	1	0	1	16	37	28	33	116
한국	13	9	14	8	22	27	27	16	136

자료원 : WTO

- 이러한 기술장벽의 대부분은 공공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전자, 차량, 식음료 제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요건들임.

□ 이 외에도 자유무역을 위해 진전되어야 할 조치들이 지연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UR협상 결과로 WTO 체제가 출범한 이래 선진국들의 관세가 평균 5% 이하로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등 특정 품목군에 대한 고관세,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Byrd법안과 같은 새로운 회색지대조치의 출현도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를 분위기를 대변하며, 향후 본격적인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촉발 내지는 예고하는 예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분담금을 노린 미국내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유사제도 도입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많음.

- 이 법안은 발효직후 WTO에 제소되어 조사가 진행중임.

<Byrd 법안>

- '99년1월 제출되어 2000년10월 클린턴 대통령 서명, 발효
-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를 덤핑과 보조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생산자에게 배분하여 제조 설비나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설비 및 제조원료 구입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001회계년도에 적용한 결과, 2억 600만 달러의 세수를 최대 3,400만 달러까지 신청업체들에게 배분
- * 이 중 한국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는 14,167천 달러임.

□ 20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나, 여러 가지 난관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과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이 종전과는 달리 국제협상무대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 그룹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되면서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현재 DD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붐을 이루면서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이처럼 다자간 통상협상이 약화되고 세계각국이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에 의존하여 다수의 경제블럭이 형성되면,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 경제블럭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무엇보다도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각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과거 어느 협상 때보다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 2002년 수입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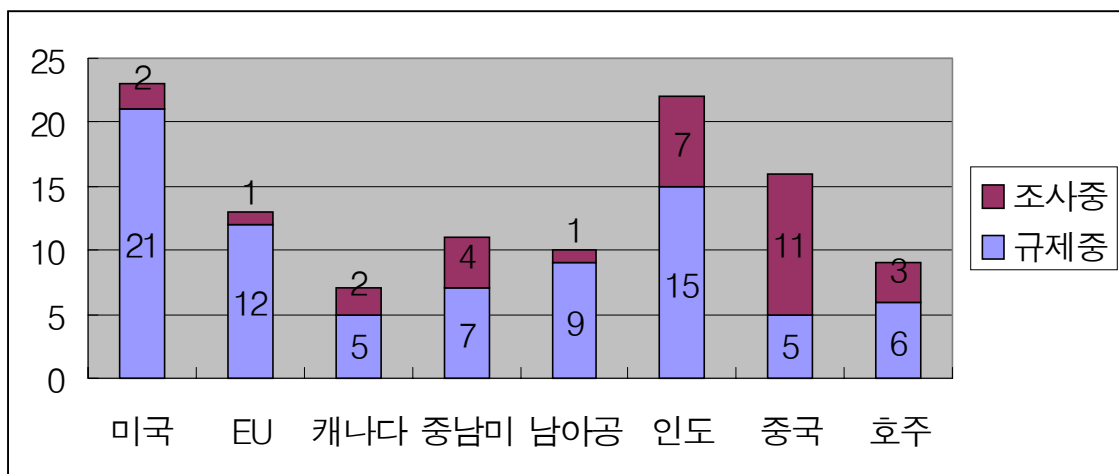
가. 총괄

□ 2002년 12월 말 현재 우리 상품은 미국, EU 등 19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128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28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은 95건이며, 조사중은 33건(반덤핑 잠정관세는 조사중으로 집계)

□ 국가별로는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2건, 중국 16건, EU 13건, 남아공 10건 순임.

<주요국별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포함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 38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6건 순임.

- 철강은 미국(17건), 캐나다(6건), 석유화학은 인도(14건), 중국(7건), 섬유류는 중남미(6건), 터키(4건), 전기·전자는 EU(4건)에서 수입규제가 많음.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06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15건임.

- 반덤핑 조치가 수입규제의 대부분(8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함.

□ 2002년 신규피소건은 24건이며 이중 개도국으로부터의 피소건이 16건(66%)을 차지함.

<2002년도 신규제소 현황>

연번	국 가	제 소 품 목	내 용	조사개시일
1	중 국	인쇄용 아트지	반덤핑	2. 6
2	태 국	무수프탈렌	반덤핑	2. 2
3	중 국	무수프탈렌(PA)	반덤핑	3. 6
4	캐나다	철강제품(9개품목)	세이프가드	3. 8
5	인 도	ECH(Epichlorohydrin)	세이프가드	3.14
6	중 국	SBR(합성고무)	반덤핑	3.19
7	E U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3.21
8	중 국	냉연강판	반덤핑	3.22
9	중 국	PVC	반덤핑	3.29
10	인도네시아	무수프탈산	반덤핑	4.16
11	중 국	철강	세이프가드	5.21
12	중 국	TDI	반덤핑	5.22
13	인 도	식용식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5.27
14	아르헨티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5.29
15	E U	반도체 D-RAM	상계관세	6.10
16	호 주	자동세탁기	반덤핑	7.5

연번	국 가	제 소 품 목	내 용	조사개시일
17	태 국	열연강판	반덤핑	7.22
18	중 국	페놀	반덤핑	8. 1
19	미 국	폴리비닐 알코올(PVA)	반덤핑	9. 5
20	중 국	MDI	반덤핑	9.23
21	베네주엘라	신발류	세이프가드	9.23
22	호 주	LLDPE	반덤핑	10.11
23	호 주	HDPE	반덤핑	10.11
24	미 국	반도체 D-RAM	상계관세	11.21

- 품목별로는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6건, 석유화학 12건, 전기전자 3건, 기타 3건임.

- 제소형태별로는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6건, 상계관세 2건임.

□ 2002년 우리 상품에 대한 신규제소건수는 2001년의 27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1999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6년간 신규피소 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제소건수	10	18	21	43	32	27	24
선진국	4	8	6	20	12	8	8
개도국	6	10	15	23	20	19	16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2년 12월 말 현재 총 23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4(1)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5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3건임.

※ 괄호안은 조사중인 건수임.

- 품목별로는 철강 17건, 석유화학 3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5/23/1986	반덤핑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01/20/1987	반덤핑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01/20/1987	상계관세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07/10/1990	반덤핑	Industrial nitrocellulose
06/05/1991	반덤핑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11/02/1992	반덤핑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12/30/1992	반덤핑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02/23/199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08/17/1993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08/19/1993	반덤핑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08/11/1995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09/15/1998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05/21/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7/27/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08/06/1999	상계관세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02/10/2000	반덤핑	Carbon steel plate
02/10/2000	상계관세	Carbon steel plate
02/10/2000	세이프가드	Certain Steel Rod
02/10/2000	세이프가드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03/20/2000	세이프가드	Steel(14개 품목군)
05/25/2000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08/14/2000	상계관세	Structural steel beams
08/18/2000	반덤핑	Structural steel beams
05/18/2001	반덤핑	Stainless steel angle
09/07/2001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03/07/2002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9/05/2002	반덤핑	Polyvinyl Alcohol
11/05/2002	반덤핑	D-RAM

□ 2002년도 미국의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치 변동내역은 스테인레스 봉강에 대한 반덤핑,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과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 무혐의 판정임.

▶ 스테인리스 봉강 : 반덤핑

- '00.12.28 : Carpenter Technology 등 5개 제조사 및 연합철강노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
- '01.02.12 : ITC 예비 긍정판정

- '01. 07.26 : 상무부 덤핑인정 긍정 예비판정
- '02.01.16 : 상무부 한국 등 5개국에 덤핑 마진 최종 결정
 - 창원특수강 : 13.38%, 동방특수강 : 4.75%, 기타 : 11.30%
- '02.02.20 : ITC 피해긍정 최종판정, '02.03.07부터 관세 부과

▶ 철강 : 세이프가드

- 조치개요 : 2002.3.20일부터 3년간 8-30%의 관세 부과
 - 2001.6 조사개시되어 ITC의 피해긍정판정이 난 16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대해 구제조치 발동

▶ 냉연강판(Cold-RolledCarbon Steel Flat Products) : 반덤핑 무혐의

- 10.16 : 냉연강판(Cold-Rolled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덤핑 무혐의 처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 품목 및 세율>

부과 관세율	해 당 품 목
30% (8개 품목)	- Flat steel products(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Tin mill steel(석도강판), Slab(슬라브)) * 단 슬라브는 수입이 540만 쇼트톤 초과시, Tariff Rate Quota) - Hot-rolled bar, cold-finished bar(열연봉강, 냉간 봉강)
15% (4개 품목)	- Rebar(철근), Circular welded tubular products(용접 강관) -Stainless steel bar (스테인레스봉강), Stainless rod (스테인레스선재)
13% (1개 품목)	Carbon and alloy fitting and flanges(관연결구)
8% (1개 품목)	Stainless steel wire(스테인레스 와이어)

□ 2002년도 미국은 우리 상품에 대해 총 3건의 신규제소를 하였음.

- '02.4.22 : 도시바, 삼성 제조 반도체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소, 당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요청(지재권 침해 관련) → 당사자간의 화의에 따른 제소 철회
- '02.11.5 : 마이크론, 삼성반도체 및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 따른 ITC 조사 착수
- '02.9.5 : Celanese Chemicals Ltd. and E.I. Dupont de Nemours,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산 폴리비닐 알콜에 대해 반덤핑 제소

캐나다

□ 캐나다 2002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에 대해 5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 제 일 자	규제내용
탄소강관	- 82/09/14 덤핑제소 - 83/03/30 덤핑예비판정 - 84/06/27 덤핑최종판정 - 90/06/05 재심/규제 연장 - 95/06/05 재심/규제 연장 - 00/06/05 재심/규제 연장	반덤핑 규제 중
아연도강판	- 93/09/07 덤핑제소 - 94/07/09 덤핑최종판정 - 99/09/07 가격재조사 실시 - 00/01/20 규제연장	반덤핑 규제 중

품 목	규 제 일 자	규제내용
철 근	- 99/06/16 덤핑제소 - 99/09/14 덤핑예비판정 - 00/01/12 덤핑최종판정	반덤핑 규제 중
스테인레스 봉강	- 98/12/03 덤핑제소 - 99/02/18 덤핑예비판정 - 99/06/18 덤핑최종판정	반덤핑 규제 중
후 판	- 93/10/18 덤핑제소 - 94/01/17 덤핑예비판정 - 94/05/17 덤핑최종판정	반덤핑 규제 중
철 강 (5개 품목)	- 02/7/4 산업피해 예비 판정 * Discrete Plate * Cold-Rolled Sheet & Coil * Angles, Shapes & Sections * Standard Pipe * Reinforcing Bars	세이프가드 조사중

□ 2002년 신규제소 내용은 철강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임.

- 2002년 3월 조사개시 공고
- 2002년 7. 4일 부분적인 피해긍정 예비판정
 - * 피해긍정 판정 : 냉연강판, 후판, 철근, 형강, 일반강판
 - * 무피해 판정 : 열연코일, 아연도강판, 봉강, 선재류

EU

□ 2002년 12월 말 현재 11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고, 철강 제품이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으며 DRAM이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음.

- 7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확정되었으며 3개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구 분	대 상 품 목 명
반덤핑 규제중(11건)	칼라TV, 3.5인치 디스켓, 글루타민산나트륨, 스테레스 휠스너, 주철제 관연결구류, 칼라TV 브라운관, 전자저 울, PET칩, 폴리에스터 합성 단섬유, PET 필름, 철강 제 관연결구류
세이프가드 규제중	7개 철강제품(Non Alloy Hot Rolled Coils, Non Alloy Hot Rolled Sheets and Plates, Non Alloy Hot Rolled Narrow Strip, Alloy Hot Rolled Flat Products, Cold Rolled Sheets, Fittings, Glanges)
상계관세 조사중	DRAM
세이프가드 조사중	3개 철강제품(tin mill products, quarto plates, rebars)

▶ 2002년 대한 수입규제 변동내역

- 신규 조치부과 :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관세 부과(2002.7)
- 신규 조사개시 : DRAM 상계관세 제소 및 조사 개시(2002.6.10)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2002.3.21)
- 규제해지 : 팩시밀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2002.3.22)
- 기 타 : 스테레스스틸 휠스너에 대해 2003.3.21일 부로 만기 공고

터 키

□ 2002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 상품에 대해 4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모두 섬유제품인데, 폴리에스테

르 단섬유,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기타단사,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텍스춰드사, 합성장섬유임.

□ 2002년도 수입규제조치 변동내역은 반덤핑 확정조치 1건임.

- 한국산 합성장섬유 제품에 대해 3.51 ~ 4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2002.2.13)

멕시코

□ 2002년 12월 말 현재 섬유제품에 대해 2건의 반덤핑 규제중임.(1건은 규제중, 1건은 조사중)

<대한 수입규제 현황>

업 종	품 목 명	제소일(규제일)	진행상황	규제유형
섬 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93. 8 : 덤핑판정 99. 7 : 일몰재심 결정	규제중	반덤핑
섬 유	Polyester Staple Fiber	99. 9. 7 : 제소 01.6.22 : 최종판정	최종판정 (기존관세 18%에 16.03%의 덤핑관세 추가)	반덤핑

아르헨티나

□ 2002년 12월 말 현재 반덤핑 5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류 3건, 기타 1건임.

□ 현재 수입규제 확정 발효중인 품목은 총 4건임.

▶ 폴리에스터 합성스테이플 섬유(5503.20.00) : 반덤핑

- 2001년5월 조사 개시, 11월6일 "조사 지속" 발표, 2002.11.12일 반덤핑 확정 판정(Resolucion 42/2002)
- 대상품명 : 폴리에스터 합성스테이플섬유
- 발동형태 : FOB 최저수출가 US\$ 0.85 / Kg
- 발동기간 : 2002.11.15일부터 3년간
- 제조업체 : Manufactura de Fibras Sinteticas, S.A.

▶ 소형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Ciclomotor) : 세이프가드

- 2000년8월17일 조사 개시, 2001년6월22일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최저종량세(Derechos Especificos Minimios) 적용
 - 적용기간 : 2001.6.22일부터 3년간(2004년6월21일 만료)
 - 제조업체 : Zanella Hermanos Y Compania S.A.
- 적용 대상 품목 : HS 코드 8711.10.00, 8711.20.10
 - 실린더 용량이 100cm 이하인 오토바이 및 스쿠터(네발짜리는 제외)
- 종량세 적용 형태 : 수입기간별 1대당 최저 관세액(단위 : US\$)

실린더 용량	'01.6.21-'02.6.21	'02.6.22-'03.6.21	'03.6.22-'04.6.21
55cc 이하	314	251	219
75cc 이하	297	238	208
100cc 이하	444	355	311

▶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5408.22.00) : 반덤핑

- 1999.12.2 조사 개시, 2001.6.1 덤핑 판정
- 반덤핑 적용 형태 : FOB 기준 최저 수출가, 1Kg당 US\$ 8.73불
- 적용 기간 : 5년간(2006년5월31일 만료)

▶ 폴리에스터 염색직물 및 나일론(5407.4200, 5407.5210) : 반덤핑

- 1999.6.17 조사 개시, 2000.6.21 덤핑 판정
- 반덤핑 적용 형태 : FOB 기준 최저 수출가, 1Kg당 US\$ 9.50불
- 적용 기간 : 3년간(2003년6월20일 만료)

□ 현재 수입규제 조사중인 품목은 총 2건이며 1건은 무협의 판정받음.

▶ 평판압연제품(두께 3mm 미만) : 반덤핑

- 2001년7월19일 조사 개시(Resolucion 161/2001호)
- 2002년4월26일 4개월간 최저수출가(톤당 350불) 적용조치 발동
- 반덤핑 제소업체 : 아르헨티나 최대 철강업체 SIDERAR S.A.
- 조사대상품목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12개 품목)

▶ 평판압연제품(두께 3mm 이상)

- 2002년 5월 29일 조사 개시(5.30 관보 게재, Resolucion 21/2002호)
 - 한국산을 비롯한 남아공 · 러시아 · 호주 · 인도 · 대만산 제품 대상
 - 아르헨티나 최대 철강업체인 SIDERAR S.A 제소
- 조사 대상 품목
 - 냉연, 열연 아연도강판(철 또는 비합금강의 냉열간 평판압연제품으로 아연 또는 알루미늄-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 반덤핑 무혐의 판정

- 2001. 2월 제소, 5월에 조사개시 → 2002. 4.12일 수출최저가 적용 조치 4개월 시한 발동(Resolucion 57/2002) → 2002. 12월 무혐의 판정

브라질

- 2002년 12월 말 현재 나일론 6번사에 대해 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PVC 레진은 2002년 11월 반덤핑 무혐의 처리됨.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규제일자	규제형태	판정내용
나일론 6번사 (5402.3100)	1999.10 : 제소 2000. 1 : 조사개시 2001. 6 : 확정판결	반덤핑	확정판결
PVC 레진	2001.11 : 조사개시 2002. 9 : 조사종료 2002.11 : 무혐의 판정	반덤핑	무혐의 처리

베네주엘라

- 2002년 12월 말 현재 신발류, 지제품에 대해 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중임.

▶ 신발류(보호용 금속토퍼 및 스키용 신발제외)

- 제소일자 : 2002. 7.25
- 조사개시일 : 2002. 9.23
- 제소자 : 베네주엘라 산업생산부(MPC)

▶ 지제품

- 제조일자 : 2001. 9.24
- 조사개시일 : 2001.10.16
- 예비판정 : 2002. 9.23일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 검토완료
 - * 필기/인쇄용지 : 관세 미부과
 - * 기타 지제품 : 관세 부과

이집트

□ 2002년 12월 말 현재 아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 타이어(HS code 4011.10, 4011.20) : 반덤핑

- 제조일 : 1998. 7.13
- 최종판정일 : 1999. 7.13
- 제조자 : Transport & Engineering Company, Alexandria Tyres Company

남아공

□ 2002년 12월 말 현재 9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1개 품목은 반덤핑 조사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3건임.
- 2002년도에 신규 제조된 품목은 없으며 Wire ropes가 10.4%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으며, 타이어튜브와 광케이블은 현재 반덤핑 해제 검토중에 있어 조만간 덤핑해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및 내용	최종판정일 및 내용
승용차 타이어	97.1.17	- 98.3.27 - 금호,우성 : 무혐의 - 한국 : 58.4% 잠정관세	98.10.1 예비판정과 동일
스텐레스 주방용기	97.11.20	- 98.4.22 - 동원금속 : 무혐의 - 여타 6개사 : kg당 23.94 ~ 27.28란드 잠정관세	98.10.21 예비판정과 동일
아크릴 담요	98.4.28	- 98.12.18 - kg당 11.5란드 잠정관세	99.6.18 kg당 5.76란드로 하향조정
스텐레스 용접관	98.7.31	- 98.12.18 - LG금속 무혐의 - 여타업체가 수출할 경우 47.6% 잠정관세	99.6.18 예비판정과 동일
카본 블랙	98.8.21	- 99.2.5 - 40% 잠정관세부과	99.9.10 예비판정과 동일
스텐레스 싱크대	98.9.4	- 99.6.18 - 384.13% 잠정관세	99.12.17 예비판정과 동일
광케이블	98.10.2	- 99.8.20 - 잠정관세 부과 면제	2000.3.31 반덤핑관세(49.9%)
과산화수소	99.5.28	- 99.8.27 - 한솔화학 : 147% - 동양화학 : 167%	2000.3.3 예비판정과 동일
Suspension PVC	2000.3.27	- 2000.12.15 - 42.31% 잠정관세	2001.6.15 예비판정과 동일
연선,로프, 케이블	2000.9.13	- 2002.02.08 - 10.4% 잠정관세	-

호 주

□ 2002년 12월 말 현재 6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3개 품목이 반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6건, 전기전자 1건임.

□ 2002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세탁기, LLDPE, HDPE 등 3개 품목임.

- 세탁기는 2002.7.12일, LLDPE와 HDPE는 2002.10.11일에 반덤핑 혐의로 신규 제소되었음.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Code	규제일	규제내용	판정내용
동 관	7411.10.00/11	2001.4.5	반덤핑	확 정
Polyol	3907.20.00/36	2002.4.26	반덤핑	확 정
Polystyrene(EPS)	3903.11.00/12	1992.11.3	반덤핑	확 정
Polystyrene Resin	3903.90.00/16 3903.19.00/13	1998.12.24	반덤핑	확 정
Polyvinyl	3904.10.00/18	2000.3.24	반덤핑	확 정
열연형강	7216.31.00 7216.32.00 7216.33.00 7216.40.00	2002.7.5	반덤핑	확 정
세탁기	8450.11	2002.7.12	반덤핑	조사중
LLDPE	3901.10	2002.10.11	반덤핑	조사중
HDPE	3901.20	2002.10.11	반덤핑	조사중

뉴질랜드

- 2002년 12월 말 현재 냉장고, 세탁기 등 2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일	규제내용	판정내용
냉장고	2001. 6.10	반덤핑	최종판결
세탁기	2001. 6.10	반덤핑	최종판결

중 국

- 2002년 12월 말 현재 우리 상품은 반덤핑 15건(조사중 4건), 세이프 가드 1건의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3건, 석유화학 7건, 섬유류 2건, 기타 4건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 목	내 용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반덤핑 세율
신문용지	반덤핑	97.11.10	98. 7. 9	99. 6. 3	55~78%
PET필름	반덤핑	99. 3.16	99.12.29	00. 8.25	13~46%
스테인레스냉연강판	반덤핑	99. 6.17	00. 4.13	00.12.18	6~58%
염화메틸렌	반덤핑	00.12.2	01. 8.16	02. 6.20	4~66%
폴리스틸렌	반덤핑	01. 2. 9	-	-	무협의 (01.12. 6)
라이신	반덤핑	01. 6.19	-	-	무협의 (02. 9.29)

품 목	내 용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반덤핑 세율
폴리에스터 stable fiber	반덤핑	01. 8. 3	02.10.22		4~48%
폴리에스터 chip	반덤핑	01. 8. 3	02.10.29		8~52%
아크릴산염	반덤핑	01.10.10	02.12. 5		11~20%
인쇄용지	반덤핑	02. 2. 6	02.11.26		5~51%
무수프탈산(PA)	반덤핑	02. 3. 6			
합성고무(SBR)	반덤핑	02. 3.19			
냉연강판	반덤핑	02. 3.23			
PVC	반덤핑	02. 3.29			
열연박판, 냉연·컬러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레스 냉연강판	세이프가드	02. 5.24		확정 (02.11.19)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TDI80/20)	반덤핑	02. 5.22			
페놀	반덤핑	02. 8. 1			
MDI	반덤핑	02.9.20			

□ 2002년에는 총 9개 제품(석유화학 6건, 철강 2건, 기타 1건)이 신규로 제소되었음.

<2002년 對韓 신규제소현황>

연번	제 소 품 목	내 용	제소일	비 고
1	인쇄용지	AD	'01.12	조사(2. 6)
2	무수프탈산(PA)	AD	1.15	조사(3. 6)
3	합성고무(SBR)	AD	3. 4	조사(3.19)
4	냉연강판	AD	2.20	조사(3.23)
5	염화폴리비닐(PVC)	AD	3. 1	조사(3.29)
6	철강재	SG	4.19	조사(5.20) 확정(11.19)
7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AD	4.17	조사(5.22)
8	페놀	AD	6.18	조사(8. 1)
9	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MDI)	AD	8. 5	조사(9.23)

일 본

- 2002년 12월 말 현재 대한 수입규제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유일함.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 반덤핑

- 조사개시 : 2001년 4월 23일
- 조사종료 : 2002년 4월 22일
- 대상품목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굵기 : 3.88-22.23, 길이: 25-80mm)
- 제조기업 : 도레이, 크라레, 유니치카 파이버 등
- 피제조기업 : 대한합섬, 고합, 새한인더스트리, 삼영합성 등 30개사
- 덤핑마진 : 32.5%(1999~2000)
-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
 - 삼영합성, 승림, 대양산업, 휴비스 : 0%
 - 삼흥 : 6.0%
 - 대한합성 등 25개사 : 13.5%

대 만

- 2002년 12월 말 현재 3개 품목(철강 2건, 기타 1건)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H Beam (HS Code : 7216.33) : 반덤핑

- 조사개시일 : 1996. 7월
- 최종판정일 : 1998. 12월
- 반덤핑 관세율 : 31.48%

▶ 강선(HS Code : 7217.10) : 반덤핑

- 조사개시일 : 1997. 8월
- 최종판정일 : 1998. 12월
- 반덤핑 관세율 : 25.39 ~ 42.38%

▶ 포틀랜드 시멘트 및 클링거(HS Code : 2523.2, 2523.10) : 반덤핑

- 조사개시일 : 2001. 6월
- 최종판정일 : 2002. 7월
- 반덤핑 관세율 : 110.99 ~ 126.81%

인 도

□ 2002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1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사중 5건), 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조사중 2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석유화학 14건, 섬유류 4건, 전기전자 3건임.

□ 2002년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ECH(Epichlorohydrin), 식용식물성 유지 2개 품목임.

<2002 對韓 신규제소 현황>

제 소 품 목	내 용	제소일	비 고
ECH(Epichlorohydrin)	반덤핑	02. 3	02.10.29일 12% 관세부과
식용식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02. 5	조사(3. 6)

<대한 수입규제 현황>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반덤핑 규제중 (11개 품목)	폴리에스터 필름	○ 00. 3 조사개시, 00. 11 예비판정, 01. 3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0.36~0.98/kg
	옥소 알콜	○ 98. 2 조사 개시, 99. 2 예비판정, 00. 7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폴란드, 러시아, 이란, 미국, EU, 사우디,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115~225/톤
	아크릴 단섬유	○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 A/D관세(한국) : US\$ 0.534/kg ○ 01.8월 재심 개시
	PTA	○ 97. 9 예비판정, 98. 3 덤핑관세, 00. 5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16.07~17.04/kg ○ 02.5월 재심 개시
	폴리스티렌	○ 97. 9 조사개시, 98. 5 예비판정, 98. 7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31.37~40.09/kg
	나일론 타이어	○ 99. 3 조사개시, 99. 10 예비판정, 00. 2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 A/D관세(한국) : US\$ 161~647/톤 ○ 01.12월 재심 개시
	EPM & EPDM	○ 99. 9 조사개시, 00. 5 예비판정, 00. 9 최종 판정 ○ A/D관세(한국) : US\$ 2,445~2,461/톤
	광섬유	○ 99. 7 조사개시, 99. 11 예비판정, 00. 6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US\$ 2.32~8.96/km
	합성고무	○ 98. 2 조사개시, 99. 1 예비판정, 00. 5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터키, 프랑스, 미국, 독일 ○ A/D관세(한국) : US\$ 1.15~1.41/kg
	NBR	○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검토(유지)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한국) : US\$ 248.35~679.10/톤
	NaCN	○ 99. 3 조사개시, 99. 10 예비판정, 00. 3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 A/D관세(한국) : US\$ 1,608.16/톤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중 (4개 품목)	배터리 (LLAB)	○ 00. 12 조사개시, 01. 3 예비판정 ○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 A/D 잠정관세(한국) - 산업용 : US\$ 3.1928/kg - 자동차용(NMF) : US\$ 2.216~2.532/kg - 자동차용(MF) : US\$ 1.904~2.121/kg ○ 01.12월 최종 판정
	POY	○ 01. 8 조사 개시, 01. 11 예비판정 ○ 대상국 : 한국, 터키 ○ A/D 잠정관세(한국) : US\$ 0.358/kg
	PIB	○ 01. 9 조사개시, 현재 조사중 ○ 01.12월 잠정관세 ○ 관련국 : 한국
	폴리에스터 단섬유	○ 99. 1 조사개시, 99. 9 예비판정, 00. 1 최종판정(무혐의 판정), 01. 6 반덤핑 재검토, 조사중 ○ 02.7월~2003.1.9일 잠정관세 부과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 A/D 잠정관세(한국) : US\$1.264/kg
반덤핑 조사중 (1개품목)	가성소다	○ 2001.4월 제소 ○ 01.5월~2002.3월 조사 ○ 조만간 잠정관세 부과 예상 ○ 반덤핑 관세율 : 353.4불/톤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세이프가드 규제중 (4개 품목)	GFO	○ 00. 7 조사개시, 01. 1 최종판정 ○ SG Rate - 01. 1. 24~03. 1. 23 : 20% - 03. 1. 24~03. 7. 23 : 15%
	페놀	○ 99.2 조사개시, 99. 6 발동, 01.5 2년간 연장 ○ SG Rate - 01. 6. 30~02. 6. 29 : 10% - 02. 6. 30~03. 6. 29 : 7%
	아세톤	○ 99. 10 조사개시 및 발동 ○ SG Rate - 01. 1. 27~02. 7. 26 : SG Rate 21%와 Rs 2,250/톤 중 낮은 것 적용 - 02. 7. 27~03. 7. 26 : SG Rate 9%와 Rs 965/톤 중 낮은 것 적용
	ECH	○ 2002.3월 조사 개시 ○ 대상업체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 적용일 : 2002.10.29 ○ SG Rate : 12%
조사중 (2개 품목)	NBR	○ 00. 1 상계조치 제소, 조사 중 * 이 품목은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중이며, 반덤핑과는 별개로 상계관세 제소중
	식용식물성 유지	○ 02.5월 조사 개시

태국

☐ 2002년 12월 말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2건)를 받고 있음.

- 3건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임.

☐ 2002년 들어 신규제소된 품목은 무수프탈렌과 열연강판임.

- 무수프탈렌의 경우 2002. 2월 반덤핑 예비조사를 시작하였나, 조사기간(90일)이 훨씬 경과된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소멸된 것으로 추정됨.
- 열연강판은 2002. 11.19일 이후 4개월간 반덤핑 잠정관세(17.46%) 부과중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 Code	관세율	규제내용	발효일
H 형강	7216.33	CIF 기준부과 27.78%	반덤핑	1997.5.26~현재
열연강판 (폭 600mm 미만, 이상)	7208, 7211.13 7211.14 7211.19	CIF기준 부과 17.46%	반덤핑	2002.11.19일 이후 4개월간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스텐레스 압연 강판 (냉간압연품)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	CIF기준 부과 51.54%	반덤핑	2002.11.25일 이후 2개월간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 ☐ 2002년 12월 말 현재 3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 1개, 석유화학 2개 품목임.

- 2002년 들어 신규제소된 품목은 무수푸틸산으로 4.22일 반덤핑 혐의로 제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 목	피제소국	관련기업	조사개시	추진상황
무수푸틸산	인도, 한국, 일본	애경유화 동양제철화학 고합	02.4.22	실사 진행중
철 망간, 규소망간	한국, 인도, 싱가폴	동부한농화학, 동일산업, 포철 5개사)	01.5.14	02.11.6 최종 덤핑마진을 19% 부과를 산업무역부 장관에 건의
카본블랙	한국, 인도, 태국	콤롬비아케미컬, 한국제철화학, 한국카본블랙	98.7.1	01.1.16 인니 반덤핑위원 회 최종 덤핑 마진을 (15.64%-18.89%)부과를 산업무역부 장관에 건의. 01.8 한국의 산업자원부 에 서한전달

말레이시아

- 2002년 12월 말 현재 골판지(Corrugating Medium Paper)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동품목은 1998년 판덤핑 최종판결을 받아 골판지 종류에 따라 17.3 ~ 35.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카본블랙은 2001년 12월 반덤핑 혐의로 제소되었으나 조사결과 2002년 10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

3. 2003년 수입규제 전망

가. 총 괄

- 올해 세계경제는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세계적인 주가하락에 따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세계적 디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이라크 공격임박설 등의 악재로 인해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는 불투명함.
- 최근들어 미국과 독일경제도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각국은 초과 공급상태에 있는 산업에 대해 시장원리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보다는 대규모 실업발생을 우려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반도체,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최근들어 미국, EU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조치 발동국 외에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도 자국산업 보호목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활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00년에 109건, 2001년에 120건, 2002년에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가 이어질 경우 2003년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14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별로는 미국이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섬유 산업 등의 전통산업 위주로 수입규제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EU, 중국, 인도, 등이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수입규제조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WTO가입 이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내 과잉 공급의 심화로 인해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WTO와의 관세양허 협정에 따라 매년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무역수지적자 또한 매년 상당액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년간 수입규제조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임.
- EU에서는 반덤핑과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신정부의 국내산업 육성정책 및 고용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 있음. 반면 아르헨티나는 2003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태환제 폐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어 당분간 수입규제는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도에는 미, 중, EU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고, 미, EU에 의해 D-RAM 및 조선산업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가 확정될 경우, 철강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전체적인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세계적으로 번진 철강분쟁의 영향으로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철강수출은 2003년도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 수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철강제품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US\$)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1~11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액	8,422	9%	7,370	-12.5%	6,791	-7.8%

주) HS Code 72, 73 기준

자료원 : KOTIS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14개 철강품목은 우리의 대미 철강수출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부과 1차년도인 2002년도에 우리의 대미 철강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03년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대미 철강수출 동향>

(단위 : 백만 US\$)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1~11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액	1,574	8.3%	1,375	-12.6%	1,057	-23.1%

주) HS Code 72, 73 기준

자료원 : KOTIS

- 철강 7개 제품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중 우리의 관심품목으로는 냉연강판 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EU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냉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에 따라 대EU 철강수출은 2003년도에 침체될 것으로 보임.

<대EU 철강수출 동향>

(단위 : 톤,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추정)	
	물량	증감율	물량	증감율	물량	증감율	물량	증감율
냉연강판	62,258	-	209,365	236	179,364	-14.3	129,680	-27.7
철강제품계	653,076	-	933,254	42.9	709,742	-23.9	579,854	-18.3

자료원 : 외교통상부

- 2002년 11월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는 잠정조치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이나 열연강판, 냉연강판과 같은 우리의 대중 수출주력 품목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었고, 냉연강판의 경우 현재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까지 받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 철강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중 주요 철강재 수출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추정)	
	물량	증감율	물량	증감율	물량	증감율	물량	증감율
열연강판	442	-	466	5.4	386	-17.1	327.1	-15.2
냉연강판	833	-	1,046	25.5	1,048	-0.2	989.2	-5.6
철강제품계	3,057	-	3,282	7.3	3,951	20.3	3,650	-7.6

자료원 : 외교통상부

- 미 상무부는 현재 Micron Technology사의 요청에 따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EU에서도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인데, 산업피해 최종판결이 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반도체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2002년(1~11월) 우리의 대미 D-RAM 수출은 17억 6,200만 달러

로 전체 대미 반도체 수출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D-RAM 반도체 수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인 만큼, 미, EU의 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D-RAM 및 전체 반도체 수출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산 D-RAM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 하이닉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Micron Technology, Infineon Technology, Epida, Toshiba, Matsubishi 등은 반사이익을 보게되어 이들 업체의 D-RAM 시장 점유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D-RAM 반도체 수출실적>

(단위 : 백만 US\$, %)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1~11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4,132	39.6	1,551	35.4	1,762	32.6
EU	2,256	21.6	888	20.3	1,151	21.3
일본	1,544	14.8	661	15.1	743	13.7
기타	2,512	24.0	1,285	29.2	1,738	32.2
전체	10,444	100	4,385	100	5,394	100

자료원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1999년 말 시작된 EU와의 조선 분쟁은 2002년 10월 EU가 WTO에 정식 제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미 국내조선업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WTO의 최종결과가 나오는데는 최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수주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세계 조선시황이 불황인 점을 감안했을 때, EU의 조선보조금이 재계된 현재 우리의 조선산업도 일정부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
- 2002년 1~8월 세계 조선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31%나 감소하였

고, 수주잔량도 전년 동월대비 7% 감소하는 등 세계적 조선경기는 불황임. 이러한 세계해운 및 조선시황의 불황으로 2002년 1~9월 우리의 수주 실적은 3,940천 CGT에 거쳐,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하였음.

<우리 나라 조선 수주량 추이>

구 분	2001년		2002년	
	척	천 CGT	척	천 CGT
1/4분기	55	1,699	21	917
2/4분기	64	2,428	65	1,754
3/4분기	43	1,418	39	1,268
4/4분기	23	864	-	-

자료원 : 한국조선공업협회

- 이 밖에 EU는 2003년 7월부터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한 외국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고,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도 2003년 1월부터 중고 수입차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어서 한 해 10만여대에 이르는 국산 중고 승합차 수출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나. 주요국별 전망

미국

- 최근 수입규제 조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철강 부문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수입규제 해소 건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나 경제여건, 정치적 상황, 기업전략 등의 변수로 인해 오히려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2003년 중반 이후 경제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 기업실적 악화, 실업 증가가 지속될 경우 미 업계 및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부시는 민주당 입김이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회복이 2003년 중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각 주별 단체의 표심 회복을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함.
 - 최근 들어 아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 업계 제소행위는 침체를 거듭한 IT 산업의 상호 견제전략으로 풀이되는데, IT산업의 과잉설비가 빨리 해소되지 않는 한 IT부문에서 수입규제 움직임은 강화되어질 것으로 보임.
- 품목별로는 2003년에 특별히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으나 미 섬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섬유쿼터가 완전 해제되는 2005년부터는 수입규제 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주된 관심사는 수입규제 보다는 한국 시장 개방이므로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임.

EU

□ 2003년에는 환경문제가 EU 통상정책의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로 무역/통상조치 제.개정 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양자 무역협상에서도 환경영향 평가(SIAs :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를 시행하기로 결정

□ 2003년에도 우리 수출상품은 EU로부터 여전히 수입규제 압력에 직면할 것이나 이는 반덤핑이나 수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는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을 이유로 한 조치들이 주된 형태가 될 것임.

- 폐가전지침이 사실상 확정되어 제조업체에 무료수거 및 일정수준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
- 모터사이클 및 3륜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과 전자오븐과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라벨링 규정 강화
- 환경마크인 에코라벨도 계속 확대세 : 현재 소형 가정용전기기기, 장갑, 완구 및 게임 등 무려 33개 품목군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제정가능성을 조사중

□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제외하고는 2002년에 이어 2003년 역시 EU의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히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는 산업/품목도 없음

- 유럽 산업계가 유럽 경기회복 둔화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비유럽국가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대한수입규제 압력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인 D-RAM에 대해, 관련 업계가 확정관세 부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중국

□ 중국은 WTO 가입 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보다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대한 무역수지적자(1993~2001년 무역적자 누계액 : 307.9억 달러) 해소를 위해 수입규제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임.

- 2002년 들어 신규 제소된 10개중 품목 중 9개(반덤핑 8건, 세이프가드 1건) 품목이 우리 나라 제품임.

□ 중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01년 6건에서 '02년(12월말 현재) 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심화되는 중국내 공급과잉 현상도 앞으로 반덤핑조사 등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중국의 반덤핑조사 품목은 주로 원부자재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80% 이상이 원부자재여서 저가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일부 수출기업들은 수입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 수입상의 요구

에 따라 소위 ‘언더 벨류’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도 자칫 반덤핑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2000년부터 중국의 반덤핑 조치 활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조사건수 : 2000년 1건, 2001년 6건, 2002년 10건), 중국의 이러한 반덤핑제소 남용과 반덤핑 조사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앞으로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나는 중국내 법규와 조사과정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수정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도

□ 인도는 개도국중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2001. 4월부터 기존의 수량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수입억제의 유효한 수단으로 수입규제를 이용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중국, EU와 함께 가장 많이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인도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인도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고처분 내지 떨어시장(밀어내기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서 기인함.

- 즉, 우리 수출업체들은 물류, 수송비용, 고관세 등에 비추어 인도 시장이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타시장 수출이 어려울 경우 미소진 물량을 저가에 수출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
-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은 주로 화학제품과 일부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음.

- 인도는 WTO와의 관세 양허협정에 따라 매년 관세율을 낮추어 가고 있고, 무역수지 또한 매년 상당액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국내 각 산업부문에서의 수입규제 요구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도에 수입규제 움직임이 보이는 품목은 각종 유기/무기화학제품, 인조섬유 원료 등임.

아르헨티나

- 태환제 폐지 및 환율인상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등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어 수입규제 해소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태환제 폐지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내국산품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반덤핑 해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입감소율이 90%에 육박, 여타국 평균 60%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대아르헨 수출액 절대 규모가 크게 하락했고, 내년에도 큰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당분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인해 수입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우리의 대 아르헨티나 주력 수출품목에도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 주종 수출산업인 전자 및 자동차 등의 경우 수입 시장이 와해된 상태이며, 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내년 중 동 산업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섬유제품은 물론 직물류에 이르기까지 수입대체가 진행중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섬유류 수입시장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섬유산업에 대한 수입규제도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수입시장의 붕괴상황 직면으로 대부분 품목의 대 아르헨 수출이 대폭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부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규제 제소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남아공

- 내년도 남아공 경제는 3%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AGOA법으로 인한 대미 수출증대, 대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으로 내년도 남아공의 대한 수입규제는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남아공의 기업형태가 독점 또는 소수기업에 의한 과점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수입품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입증이 유리하고 이들 기업들의 정부 로비력이 상당하여 반덤핑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임.
- 올해 남아공의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및 세정용구의 경우 지난 2년동안 500% 이상의 수입증가세를 보여 2002년 10월 기준 수출액은 미화 7백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품목의 경우 수입관세가 20~30%로 높은 편이며 남아공 자국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남아공 내 한국제품 수입점유율이 높은 화학관련 제품은 한국

산 시장 점유율이 계속하여 상승할 경우, 동 품목을 제조하는 독점 기업인 SASOL사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호주

□ 2003년도에 호주는 소비재 수입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호주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호주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개선되던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가 예상되는데 99/00년의 82억불 적자에서 00/01년에는 크게 개선된 16백만불 적자로 줄었던 것이 01/02에는 3.9억불로 다시 늘어났고, 이같은 적자 추세는 200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서는 2003년도에 특별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는 품목은 없으나, 농업, 광산업, 철강, 식품가공, 화학제품, 섬유봉제, 자동차 산업 등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의류, 신발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도 규제의 가능성이 있음. 금년에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여부 조사를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금년 3/4분기 현재 한국의 대 호조 수출 품목중 수출금액이 5백만불 이상으로서 수출증가율이 100% 이상을 보인 품목은 건설중장비 등 6개 품목임. 아직까지 동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으나 동 품목의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호주 국내업체의 제소를 받을 가능성은 있음.

<한국의 대 호주 수출급증 품목>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1년		2002년(1월~9월)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6171	주단강	2,498	-11	5,203	208.3
7131	공기조절기	4,405	-3.4	6,932	154.1
8125	무선수신기	3,399	63.8	7,797	228.0
8136	컴퓨터부품	4,665	0.5	14,711	345.7
1332	경 유	11,537	-81.6	16,046	284.3
7251	건설중장비	13,311	-53.9	18,400	102.6

첨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2년 12월 말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미국	14(1)	1(1)	5	3	23(2)
캐나다	5			1(1)	6(1)
EU	11	1(1)		1	13(1)
터키	4				4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5(2)			1	6(2)
브라질	1				1
베네주엘라				2(2)	2(2)
이집트	1				1
남아공	10(1)				10(1)
호주	9(3)				9(3)
뉴질랜드	2				2
중국	15(11)			1	16(11)
일본	1				1
대만	3				3
인도	16(5)			6(2)	22(7)
태국	3(2)				3(2)
인도네시아	3(1)				3(1)
말레이시아	1				1
합 계	106(26)	2(2)	5	15(5)	128(33)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2년 12월 말 현재)

국 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 타	합 계
미국	17	3	1	1	1	23
캐나다	6					6
EU	3	3	1	4	2	13
터키			4			4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2		3		1	6
브라질			1			1
베네주엘라					2	2
이집트					1	1
남아공	2	3	1	1	3	10
호주	2	6		1		9
뉴질랜드				2		2
중국	3	7	2		4	16
일본			1			1
대만	2				1	3
인도	1	14	4	3		22
태국	3					3
인도네시아	1	2				3
말레이시아					1	1
합 계	42	38	20	12	16	128